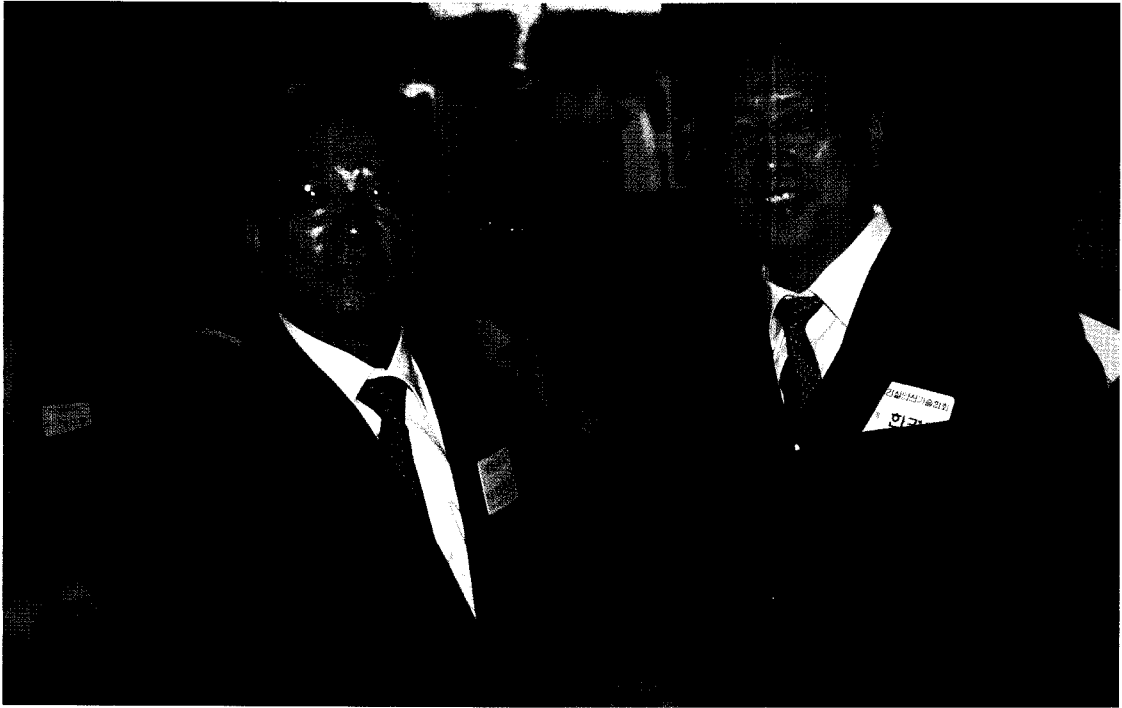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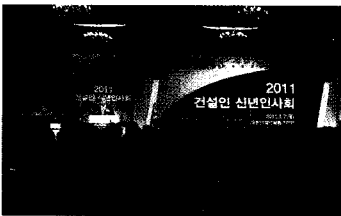


한경보 회장 2011 건설인 신년인사회 참석



• 2011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경기도시공사 이한준 사장과 새해인사를 나누고 있는 한경보 회장.



• 2011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한경보 회장은 1월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있었던 2011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과 경

기도시공사 이한준 사장 등 건설업 관계자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고 새해 업무 추진 방향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건설인 신년인사회는 건설인과 정부·유관기관이 새해를 맞아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위상 제고 및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이날 행사에도 김황식 국무총리의 영상메시지를 비롯해 정동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유관기관, 기업체 대표 및 회원사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도록 이끌어온 건설인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히고 미국발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자신감을 갖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건설인들이 솔선수범, 전세계 시장에 도전해 건승과 행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치사를 통해 건설업은 경기활성화의 핵심으로 그간 놀라운 성장을 이어나고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유럽 발 금융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위기 상황인 만큼 기술개발을 통해 첨단기술 개발에 힘쓸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2014년 세계 5대 건설강국의 꿈을 실현시켜 나아가자고 당부 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경기도시공사 이한준 사장은 한경보 회장과의 대담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시공사의 방문을 요청하고 업무제휴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였다.

2011년 시무식과 함께 힘찬 출발



• 협회는 지난 1월 3일 시무식을 갖고 희망찬 한해를 출발하였다.

협회는 1월4일 9시 시무식을 갖고 2011년의 힘찬 출발을 하였다. 한경보 회장을 비롯해 박구준 부회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시무식에서 한경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책임과 권리를 다하는 마음가짐과 win&win을 염두에 둔 사고방식,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박구준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1년 신묘년의 화두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를 설명하고 모든 회원과 임직원들이 적극적인 사고로 새해를 맞을 것을 기원하였다.



• 2011년 1월1일 자택에서 2011년 화두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 서예작업을 하고 있는 박구준 부회장.

一切唯心造

韓國建設安全技術協會
常務副會長 朴九澤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는 '일체의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을 바꾸어 먹으면 세상을 바꾸어서 살수있다.'는 의미로 박구준 부회장은 신묘년 화두어를 협회지에 제공하였다.

2010년 제2회 이사회 개최



• 2010년 제2회 이사회에서 수주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최용화 경인본부장.

2010년 제2회 이사회가 지난 11월30일 협회 제2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경보 회장을 비롯해 박구준 부회장, 김용경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개회인사 및 성원보고, 개회선언 등에 이어 각종 보고가 이루어 졌으며 부의안건으로는 신입회원 승인의 건이 이루어 졌다.

이날 이루어진 각종 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회 20년사의 성공적 발간.
2. 교육사업 활성화 추진 사항
 - 기술사 교육훈련(DPD) 실시(기본과정 31명/전문과정 29명)
 - 관리책임자 교육: 총 26회 / 교육인원 939명
 - 안전관리자 교육 총 32회 / 교육인원 941명
3. 심포지움 개최: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 주제: 건설현장 재해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한 방안

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 워크숍 주제발표
 - 산업안전보건 선진화 방안
5. 산업안전보건서울선언 실천행사
6. 신규회원 105명 신규가입을 비롯한 회원관리 사항
7. 기타 대외활동을 통한 대외적 기술력 및 공신력 제고 및 위상 강화 활동 내용 등이 보고 되었다.(경기도 아파트품질검수위원, 건축심의, 출제위원 등)

한편,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2010년 사업실적 현황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는데, 2010년 사업실적의 경우 전년대비 104.21%의 수주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국내 건설경기가 심각한 불황의 상황임에도 이러한 실적은 이룬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되었으며 연말까지는 매출액 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협의회 발족



• 11월 17일 발족식을 가진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협의회

안전보건에 관한 세계 최초의 국제현장인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의 국내 확산을 위해 노·사·정 대표기관 등으로 구성된 국내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는 서울선언 실행협의회 발족식도 가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11월 17일(수) 서울 명동에 소재한 세종호텔에서 제4차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국내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선언 실행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성과 설명과 국내 확산을 위한 효율적 추진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서울선언'은 지난 2008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 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전세계 노사정 대표자 46명이 서명, 안전보건의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이며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임을 천명하고 사회 각 주체별 안전보건 실천의지를 담은 최초의 국제적 안전보건 헌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베트남 및 중국 등에서 개최된

서울선언 특별세션 개최 등 2010년 추진성과와 2011년 추진계획 설명이 있었으며, 아울러 적극적인 국내의 서울선언 실행 확산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특별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서울선언 실행이 부족한 국내의 서울선언 실행 확산 및 국내 산재예방문화 정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협의회'를 발족하였다.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협의회'는 국내위원회 19개 기관 및 안전보건 전문 단체 및 사업장 13개소 등 총 32개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해 앞으로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지지서명을 한 단체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회원기관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속기관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확산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총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보 회장 수원시 도시경관 현장투어 참가



• 수원시 경관투어 행사에서 현장을 설명하고 있는 열태영 수원시장

을 평가하고 보행자의 양호한 통행 공간 및 가로경관 통일성을 유지함은 물론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저해하는 건축물 및 지하도로 개선을 위해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염경환 수원시장을 비롯해 한경보 회장 등 관계공무원과 경관위원회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 건축사협회 대표자 등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수원시청 인근 결혼회관에서 출발된 이날 점검은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 조한약방과

한경보 회장은 지난 11월2일 수원시청 주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현장 투어에 참가해 염경환 수원시장을 비롯한 참가자들과 수원시 전역을 둘러보았다.

수원시내 건축물의 배치계획 및 형태, 색채 등의 조형성

수원백병원, 라이프스포츠센터 등의 잘된 곳 뿐 아니라, 장안구 정지동에 위치한 P 프라자 및 이목동 지하도와 같은 잘못된 곳의 사례도 점검함으로써 향후 수원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방향을 잡는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

한경보 회장 삼성전자 CS 혁신대회에 영상메시지 전해

한경보 회장은 삼성전자 시스템 영업팀 CS 혁신 추진대회에 영상메시지를 통해 삼성전자 시스템 공조기기의 우수성에 대한 업계 여론을 전하고 꾸준한 제품 개발로 지속 발전을 기원하였다.

한경보 회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2010년은 삼성전자가 B2B CS에 혁신을 이룬 한해였다고 말하고 2011년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통한 업계리더가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세계 초일류기업이 된 삼성전자는 설립당시부터 인간존중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경영이념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경영이념과도 일치하기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자가 될 것임을 밝혔다.



• 삼성전자에 영상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촬영에 임하고 있는 한경보 회장

제92회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자 협회 방문



• 협회를 방문한 건설안전기술사 제 92회 영광의 합격자들.

제92회 건설안전기술사 시험 합격자 일행이 지난 10월 27일 협회를 방문해 한경보 회장과 안태호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현황 및 활동계획에 대한 감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주섭 합격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건설안전에 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그룹에 합류한 것에 대한 기쁨과 또한 이제까지 선배들

이 일구어온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경보 회장은 바쁜 일과와 업무수행 중에도 난관을 극복하고 합격의 영광을 얻은 합격자들은 진정 이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치하하였으며, 향후 건설안전업무에 최고의 기술을 갖춘 전문가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이날 협회를 방문한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 제92회 합격자

고려개발 이 송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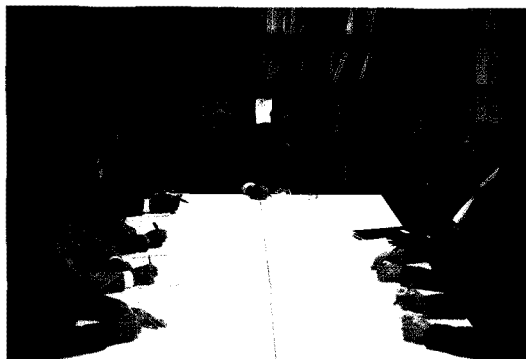
한진중공업 이 진 우

롯데건설 정 흥 근

쌍용건설 안 용 철

평택시청 송 기 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 주 섭 이상 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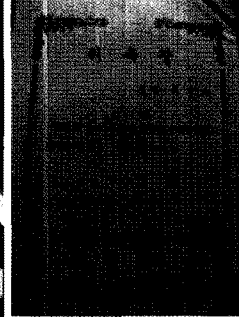
최인봉 회원 기술위원 위촉



• 신임 최인봉 기술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한경보 회장.

최인봉 회원(교과부 시설서관)이 협회 기술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협회는 지난해 10월27일 최인봉 회원의 기술위원 위촉식을 갖고 취촉장을 수여했다.

한경보 회장으로부터 이날 기술위원으로 위촉된 최인봉 회원은 한양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로 그간 전북



대를 비롯해 군산대, 서울대, 전남대 등에서 시설사무원 시설서관으로 근무하

며 교육시설 관리 및 개선에 정진해왔다. 특히, 초·중등학교 운동장 지하이용연구와 화장실 세정수의 빗물이용연구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으며, 이 논문들은 현재 실제로 적용되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날 기술위원에 위촉된 최인봉 위원은 선배 기술위원분들의 뛰어난 업무역량을 익히 알고 있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나 향후 건설안전분야 발전을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워싱턴대학교 한국동문회장 취임



• 워싱턴대학교 한국동문회장에 취임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 현 회장.

김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이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대학교 한국동문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워싱턴대학교 한국동문회는 지난해 12월 4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김 현 서울

지방변호사회 회장 겸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현재 국내에 약 1,500명의 동문이 있는 워싱턴대학교 한국동문회는 세계 최고 명문대의 명성과 더불어 높은 결속력으로 유명한데, 김 현 회장은 1990년에 워싱턴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편, 법무법인 세창은 그간 맡은 바 직무를 성심성의껏 수행한 변호사와 직원들에 대한 승진 인사를 2011. 1. 1. 부로 단행하였는데, 강백용 변호사와 조철호 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 되었으며 이정숙 대리와 전은규 대리가 과장으로, 김민정 주임은 대리로 승진되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엄현택 신임 회장 취임



• 지난해 12월 9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정기총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엄현택 신임회장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임 회장에 엄현택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선출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지난해 12월9일 충북 충주시 주덕읍 협회 산업안전연수원에서 열린 제 40차 정기총회에서 엄현택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제 23대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엄현택 신임 회장은 자율과 시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산업안전분야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엄 신임 회장은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정책과 행정이 정부 및 규제 중심에서 시장과 기업 중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협회와 기업 안전보건담당자들의 책임과 사명감이 더욱 막중해 지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가 G20정상회의 의장국가가 된 만큼 이제는 산업안전에서도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기수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산재왕

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을 놓겠다”고 덧붙였다.

엄 신임 회장은 2011년 1월 1일자로 취임하며 공식업무를 시작한다. 1956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엄 신임 회장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와 미국 일리노이대 대학원에서 노사관계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한성대에서는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4회 행정고시를 거쳐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 입문한 이래 노동부 국제협력관, 서울지방노동청장, 노사정책국장, 산업안전보건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 고용노동부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엄현택 신임회장은 산업안전보건분야는 물론 고용정책과 노사관계에 있어 실무 경력이 풍부하고, 다년간의 국외 경험으로 국내·외 산업안전보건 및 고용정세에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안전최고전략과정 소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강태진 학장은 산업기술 및 경영체계를 뒷받침할 고급관리인력 양성을 위해 협회회원들의 입학에 적극 당부하며 산업안전최고전략과정 소개를 요청 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산업안전최고전략과정은 1년간 전일제로 진행되며, 공학 전 분야의 다양한 지식 연마를 통해 산업계 고급관리자들의 관리능력 배양을 통해 산·학 네트워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 과정을 마치면 서울대학교 총장명의로 수료증이 수여되며, 서울대학교 동문으로 총동창회 동분자격이 부여되며 향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안전최고전략과정
Advanced Industrial Safety Strategy Program
College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의 기술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세미나 및 포럼에 참가하게 되며, 정기간행물 및 서울대학교의 전산실,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도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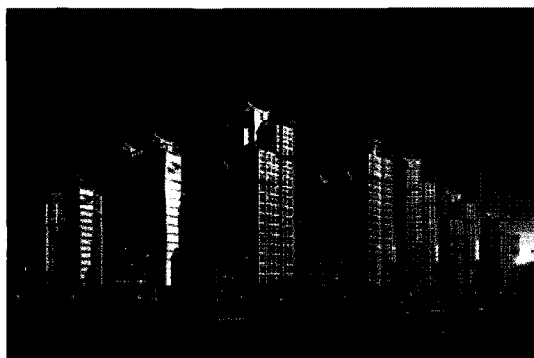
교육과정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전일제로 진행되며 수업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이루어진다.

입학자격은 공·사기업 및 산업계 기관 부장급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입학지원서등 제반

서류를 갖추어 2011년 1월 24일부터 2월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2011년 모집인원은 30명 내외.

SK건설, 인천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SK건설이 인천 갈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했다. SK건설이 수주한 갈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12-39번지 일원의 50,005m²의 대지에 지하2층, 지상22층 14개동으로 전용면적 39.20m² 160가구,



59.99m² 152가구, 84.99m² 472가구, 100.20m² 86가구, 117.85m² 70가구 등 총 940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중 임대 160가구, 조합원 분 502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278가구다. 도금액은 1,650억 원이다. 갈산1구역은 교육, 생활, 교통 등 뛰어난 입지 여건을 자랑한다. 주변에 부평북초, 삼산중, 안남고, 부평고 등의 학교들이 위

치해 있고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부평 국민체육센터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 생활환경이 뛰어나다. 인천 지하철 갈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경인고속도로 부평IC와 외곽순환도로에 인접하여 서울, 인천, 부천, 일산 등의 접근성도 좋아 교통

환경도 매우 우수하다. 2012년 9월 착공과 함께 분양이 이뤄지며 2014년 12월 준공 및 입주 예정이다.수도권영업1팀 김수환 팀장은 "갈산1구역은 입지여건이 뛰어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SK건설의 우수한 시공능력을 통해 인천 부평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삼성 래미안, 스마트폰, 태블릿PC로 더 스마트해진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 가정 내 전기와 가스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선보인다.

삼성물산(대표이사 정연주)은 에너지 사용량 등 각종 정보 제공 및 가전기기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래미안 스



마트 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지난 12월15일 밝혔다. 래미안 스마트 홈 애플리케이션은 작년 12월15일 출시

부터 서비스해 나갈 방침이다.

한 갤럭시탭 등 태블릿 PC를 비롯해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되며 이용자는 앱을 무료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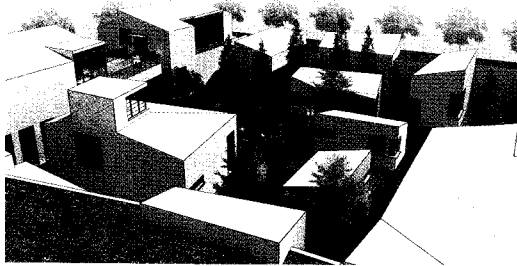
삼성물산은 랜(LAN) 기반의 홈네트워크가 구축된 래미안 단지를 중심으로 오는 2011년

한화건설, 꿈에그린 뉴디자인 컨셉 'S - low' 발표

한화건설(대표:이근포)이 '꿈에그린의 뉴디자인 컨셉 S - low (에스로우)'를 발표했다고 지난 12월15일 밝혔다.

에스로우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한층 풍요롭고 여유로운 슬로우 라이프를 제공하고 싶은 한화건설의 디자인 철학이 담겼다.

한화건설은 '자연과의 교감'을 컨셉으로 전원주택의 마당과 공공조경을 공동주택에 도입했다. 엘리베이터와 각 세대 사이 공용공간을 활용해 전원주택의 마당을 아파트로 옮겨온 것이다. 특히 흡수층과 짝수층의 조경공간 위치를 각각 반대로 배치해 높은 층고를 확보, 키 큰 나무도 심을 수 있으며 전 층이 외부로 노출돼 있어 사계절 변화를 앞마당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세대별 마당은 유모차나 자전거를 보관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린하우스'는 입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의



입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도시미관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선하고 차별화된 컨셉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화건설은 커뮤니티 타운을 기존 일률적인 설계에서 벗어나 감성이 살아있는 옛 마을 형태로 재현해냈다. 통

합커뮤니티시설과 썬큰(sunken) 공간을 대상으로 단독건물, 골목길, 담장, 마당, 나무 등을 통해 동네 같은 작은 마을을 구성했다.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숨고, 뛰놀고 걷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건설은 최근 2011 독일 IF 어워드 2년 연속 수상 및 2010 GD마크 주택설비 최다 획득 등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에서 꿈에그린의 디자인 경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디자인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